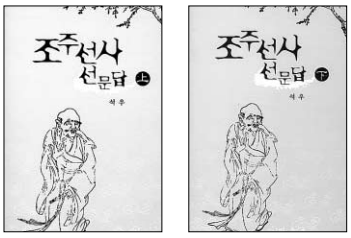


새로나온 책



『조주선사 선담』은 조주선사(석우 스님)의 생애와 교행, 관음손, 각 권 1만1천 원 = '무(無) 자 화두' '뜰 앞에 잣나무' '판치생모' 등의 화두로 선객들의 수행을 도왔던 조주 선사의 선어록집. 이 책은 그간 구어체인 까닭에 생략된 언어가 많고, 직역을 하면 잘못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의 문제로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조주선사』를 소개하는 책으로, 조주 선사의 문답을 통해 불교의 깨달음을 들려준다.

『발우공양』(한국불교환경교육원 엮음, 정토출판, 7천 원) = 정토회 산하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 『발우공양』을 펴냈다. 『밥과 깨달음의 길』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이 책에서는 발우공양을 할 때 외우는 <소심경> 속에 담긴 발우공양의 정신과 의의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발우공양의 정신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등불을 밝히고』(영문 스님 시집, 글밭, 7천 원) = '비가 오는 기/ 작은 창 열면/ 대 숲에 비람 머무는 소리/ 달 빛 떨어지는 소리/ 하얀 적막으로/ 차곡 차곡 쌓이는 소리'('소리' 전 문) 영문 스님의 두 번째 시집 <등불을 밝히고>가 나왔다. 이 시집에는 산사에서의 생활과 수행일화 외에도, 스님을 스치고 지나간 많은 인연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바람이 우는 날'과 '호박잎', '지장보살의 꿈' 등 70여 편의 시가 실려 있다.

『불교만화이야기 8』(불교문화연구소 펴냄, 3천 원) = 격월간 불교만화전문지 <불교만화이야기> 여덟 번째 권. 이번 호에서는 아름다운 월명 왕비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전생의 약속'과 해동 동자와 목어모봇 버비가 함께하는 불교교리 '묵언과 저수', 나한의 뜻과 의미를 소개하는 '오백나한 이야기' 등을 만날 수 있다.

『명당의 기운』(노영준 지음, 경덕출판사, 2만 원) = 한국자연지리학회 노영준 회장이 <명당의 기운 패철 사용법>을 펴냈다. 책에서는 자연의 순환 궤도를 살피는 패철(佩鐵) 방위를 보는 도구가 만들어진 과정과 이를 통해 방위와 혈(穴) 등을 살펴 어떤 터가 왜 좋고 나쁜지를 풍수 경전에 입각해 설명하고 있다.

'현장의 구도여정' 답사 체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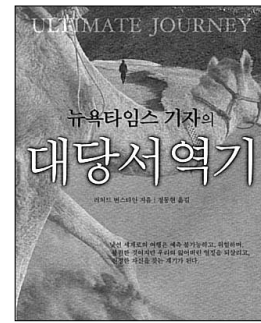


◇현장 스님은 629년, 당 태종이 출입을 금한 옥문관을 넘어 불법(佛法)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향했다. <뉴욕타임스 기자의 대당서역기>는 1400년 후 그 길을 좇은 한 중년 남성의 기록이다.

그때, 이 중년 남성의 머리에 떠오른 것이 현장 스님(602~664)이었다. 7세기 당나라 시절, 촉망받는 승려였던 현장 스님은 잘못 번역되고 왜곡된 경전 때문에 교리 해석을 놓고 다툼이 잦은 회의를 느끼고, 당나라의 불법(佛法)을 바로세우기 위해 직접 인도로 건너간다.

현장 스님은 당나라 수도 장안(지금의 서안)에서 8천 킬로미터 떨어진 인도 남부까지 말과 낙타, 코끼리를 타고 갔으며, 때로는 걸어서 갔다. 길고 긴 서역으로의 여행은 순탄할 수 없었다. 당나라 황제 태종은 육문관 너머로의 여행을 금했기에, 현장 스님은 한때 나라를 탈출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고, 이글거리는 태양과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견뎌야 했으며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렇게 17년간 110여 개 나라를 거처며 인도에 다녀온 현장 스님은 일종 전까지 1,340여 권의 경전을 번역해, 중국에서 불교가 자리 잡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현장 스님의 전설적인 순례를 좇아간 주인공은 바로 미 일간

여기, 55세의 중년 남성이 있다. 안정된 직장도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생활 속에서도 그는 늘 원인 모를 우울증에 시달렸다. 부하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러대기 일쑤였고, 아침에 출근하기조차 힘들어졌다. 정신과 상담도 받아봤지만 돌아온 것은 '프로이드식 치료'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대답뿐이었다.



『뉴욕타임스 기자의 대당서역기』 리처드 번스타인 지음 / 정동현 옮김
꿈꾸는 돌 / 1만4천 원

낙타·말 대신 기차·자동차로 비단길 여행 참 삶의 의미 터득 "이젠 기꺼이 집으로"

지 <뉴욕타임스>의 출판 평론가 리처드 번스타인이다. 삶에 지쳐있던 그는 1999년 55세의 나이로 여행길에 올랐다. <대당서역기> 루트를 따라 중국 동부의 서안을 출발해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고,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에 도착한 뒤,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오는 긴 여행을 감행했다. 물론, 현장 스님이 탔던 낙타나 말 대신 기차와 자동차를 이용했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

<뉴욕타임스 기자의 대당서역기>에서 지은이는 진리를 찾아 떠난 한 고승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발견한 용기와 열정, 그리고 깨달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차다운 꼼꼼한 메모와 치밀한 관찰, 사실적인 묘사로 여행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해당 지역에서의 일정과 경험들을 소상하게 전하고 있어 여행의 고단함과 그 속에서 발견한 기쁨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무사히 여행을 마친 그는 직장으로, 책방과 도는 일상생활로, 시간을 소모하는 책임과 의무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는 곧 '이 세상의 현실에 맞서는 가운데 의미와 지혜가 존재한다는 실존주의적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밥을 찾아 길을 떠난 현장 스님과 삶의 열정을 되살리기 위해 길을 떠난 지은이가 길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자하는 진정한 '삶의 여행자'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한시 100편 구절 해석·감상 답아



『김용택의 한시산책 1, 2』 김용택 엮음
화니북스 / 각 6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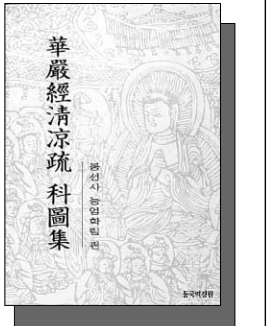
"약초를 캐다가 문득 길을 잃었는데/ 봉우리마다 단풍 곱게 물들었는데/ 산에 사는 스님이 물 길어 돌아간 뒤/ 숲 끝에 피어오르는 차 달이는 연기" (이 '산 속에서' 전문)
율곡 이이의 '산 속에서'라는 한시다. 이 시에 대해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은 이렇게 해설을 붙였다.

"약초를 캐다가 길을 잃었는데 가지마다 단풍이 진경경입니다. 길을 찾아 헤메다가 스님 만나면 갠 산 속 맑은 물로 달인 맛있는 차를 마시겠지요. 약초 캐고 단풍 보고 차 마시고... 너무도

바빠 사는 지금의 도시인들이여, 이렇듯 잠시 그대가 달려가고 있는 길을 잃고 싶지 않습니까?"
<김용택의 한시산책>은 김용택 시인이 '마음대로' 해석한 한시 모음집이다. 시인은 머리말에서 "어느 현대시 못지않게 빼어난 한시의 맛을 혼자 음미하기 너무 아까워 책으로 묶었다"고 출간 의의를 밝혔다. 2권으로 묶인 책에는 서산 대사의 '눈 쌓인 들판을 걷어가는 자여'와 지엄 스님의 '도인의 삶이'를 비롯한 100여 편의 한시가 실려 있다. 전문적인 주석이나 설명 대신, 한시의 구절 해석과 시인의 개인적인 감상을 담았다.

경전 내용 일목요연하게 정리

『화엄경 청량소 과도집』 봉선사 능엄학림 편
동국역경원 / 2만 원



낮은 길을 가다 '내가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지도를 펼쳐보게 된다. 경전을 읽을 때 역시 마찬가지다. 80권에 달하는 방대한 <화엄경>을 읽다보면, '이 구절이 <화엄경> 전체에서 어느 부분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동국역경원장 율은 스님은 <화엄경>은 원문만 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마치 망망대해에서 좌표를 찾는 것 같고, 험악한 산에서 길을 찾는 것 같다'고 비유했다.

때문에 <화엄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장 이해력을 높여야 하고, 좋은 선생과 좋은 자료를 구해야 하는데, 그 좋은 자료 중의 하나가 '과도(科圖)'라는 것이다. 경전의 내용을 문단으로 정리한 과목을 도표로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과도는, 경전이나 논서의 줄거리를 간추린 약도로 전체 내용을 개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로부터 경전이나 논서의 연찬(研鑿)에 과도를 이용하여 학습을 도왔다.

봉선사 능엄학림 10여명의 스님들이 3년간의 노력 끝에 펴낸 <화엄경청량소 과도집>은 <화엄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료다.

능엄학림은 <화엄경청량소 과도집>을 봉선사 홈페이지(www.bongsansa.net) 자료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여시이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정호 스님	시공사
2	덕산산 법향	원담 스님	덕성출판사
3	백화간두에서 한 걸음 더	법전 스님	조계종출판사
4	산문	현진 스님	열림원
5	밥상에 도가 있다	정세채	모색
6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스님	효림
7	내 사주 내가 본다	임태근	여시이문
8	그 산에 스님이 있었네	효림 스님	바보새
9	완벽한 참선법	우학 스님	좋은인연
10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현구원

도서 안내: (02) 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이문 전화: (02) 737-0695

음과 마음들 함께 하는 우리 산야초차

우리 전통의 산야초차를 수백년만에 복원, 현대화하기까지의 기록 -

신비로운 치유능력 가진 산야초차!!

교보, yes24, 영풍, 인터파크 화제의 신간

내가 회색빛 감옥에 갇혀 「야생초 편지」를 썼다면 전문회씨는 산이라는 감옥(?)에 갇혀 이 글을 썼다!

자연중독자 전문회씨, 내가 자연중독자 전문회씨를 알게 된 것은 그녀가 보내온 한 꾸러미의 산야초차를 통해서였다. 나의 책 「야생초 편지」를 읽고 동지를 만난 것 같은 기쁨에 보냈다는 그 차를 이것을 만든 이가 보통사람이 아님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그녀가 정성들여 만든 백초차를 우려마시면서 이것은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리산을 통째로 내 몸에 모시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엔 전문회씨가 발로 뛰어 만들어낸 「지리산에서 보낸 산야초 이야기」는 산야초차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산야초차의 무궁무진함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전문회씨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동지적식을 느꼈다. - 황대권 「야생초 편지」 저자

저자 사인회를 합니다.

- 정소 - 교보문고(광화문점)/시간 - 11월 29일 오후 3시
- 교보문고(강남 점)/시간 - 12월 6일 오후 4시

전문의 권 김문호 서진 | 304쪽 | 19,500원

전화: (02) 2279-4788 / 팩스: (02) 2285-6798 **환남**